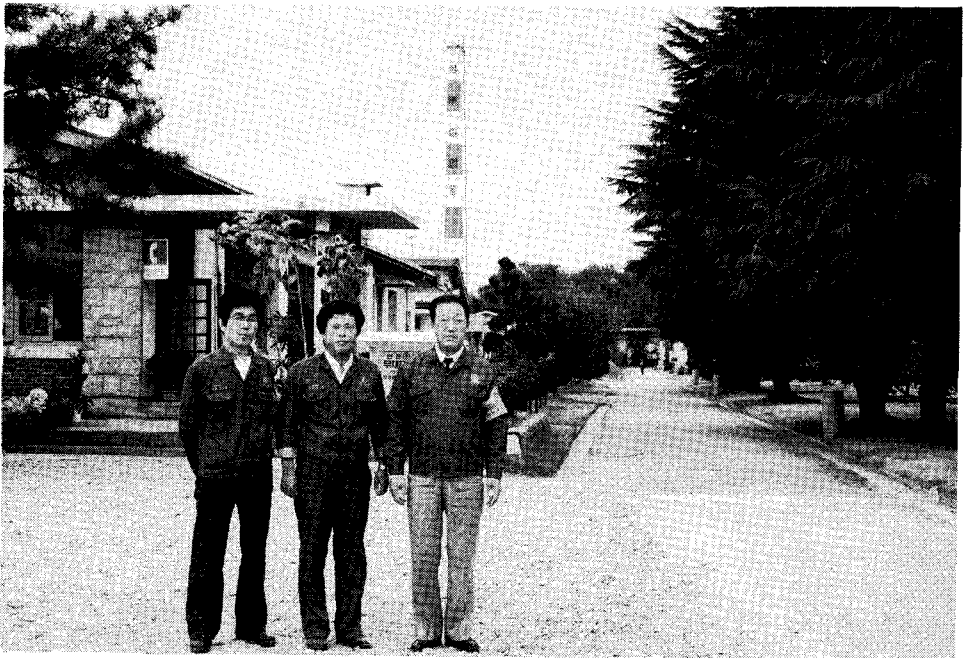


환경보전의식의 바탕위에



■ 편집부

▲성부실업(주) 앞에서, 왼쪽으로 부터 송용철차장, 김수형관리인, 은상기부장

마알간 가을벌에 고추잠자리가 동심원을 그리고 있었다.

충청협회의 질높은 추천을 받고 찾아간 곳은, 대전시 중구 태평동 423-20 성부실업주식회사. 후문에서부터 정문을 찾아서 회색빛 담파라 돌기를 한참을 하였다. 조폐공사 대전공장을 성부실업에서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만사천여평의 대지에 사방으로 잘 닦

여진 도로, 낮은 키에 누렇게 물든 잔디밭, 관상수로 다듬어진 거목들. 대전시 한가운데 이처럼 조용하고 깔끔하게 가꾸어진 공장이 있다니 놀라웠다.

성부실업(주) 대전공장은 켈런지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전매공사와 연간 계약을 맺어 국내수급의 일익을 담당하며 중국등지로 독자적인 수출을 하고 있는 박엽지전문 제지공장이다. '83년 창사이

래 계속 생산성 향상에 주목하여 지난해에는 기타 박엽지를 포함, 천만불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상공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의욕에 찬 공장이다.

현재 충청협회의 고문으로 계신 김인국공장장을 중심으로 120여명의 공장 종업원들이 '愛社, 和合, 책임, 신용과 품질'이란 내용의 사훈아래 가족처럼 친밀하고 민주적인 분위기 안에서 일하고 있

다.

환경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김 인국공장장의 방침하에 환경관리과 를 공장장 직속으로 두어 관리함으 로써 금강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성 부실업이다. “환경보전이란 국민 개개인이 인식과 양식, 그리고 행 동에 있어서 자손만대에 물려줄 우 리모두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다.” 고 말하는 김공장장은 14년간을 본 공장을 포함, 공장의 책임자로 재 직하면서 느낀 바를 “환경관리를 손비로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으 며 생산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특 히 시시각각 기록되는 폐수장의 폐 수상황을 보면서 생산라인의 현황 을 판단하게 되더라”고 하여 말로 만이 아닌 확실하고 실제적인 환경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동공장의 모 습을 대변해주고 있다.

사실 '83년 운영초기에는 환경업 무가 타업무에 비해 자주 문제에 부딪히곤 했지만 지역사회의 한계 회사로서 해당 지역사회에 결코 해 를 끼칠수 없다는 신념으로 근원적 인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했 으며, 때로 지청에 자진신고를 하 여 관과 더불어 협조함으로써 생산 을 설지언정 폐수를 그대로 내보낼 수 없다는 성의를 보여 온 성부실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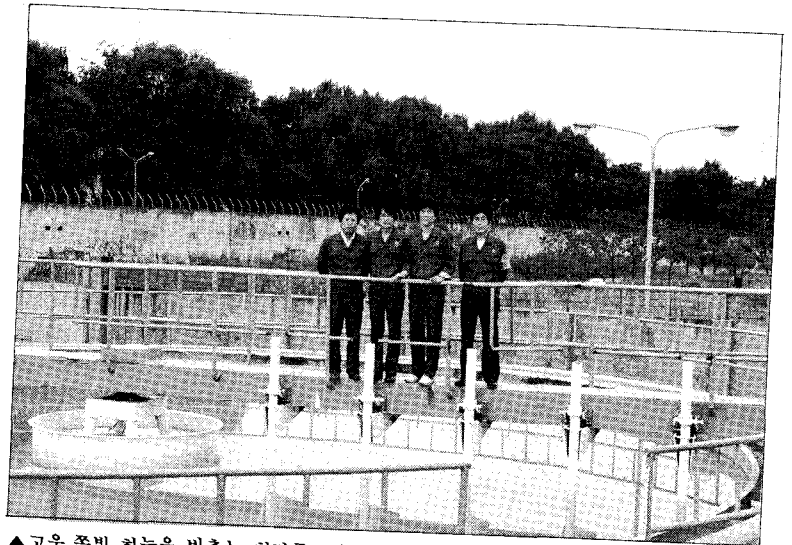
주거지역내에 위치하여 수질과 대기 각각 2종인 성부실업은 화학 침전법으로 제지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활성오니처리법으로 전환을 구상중에 있다고 한다. 일

일 폐수유입량은 1800m³/day이었으나 지난 9월 폐수처리 공정을 개선 하여 유입수량을 1/3로 줄임으로써 연간 540만원을 원가절감하게 되었다. 폐수처리공정도에 따르면, 원래는 매일1800톤 폐수가 LINE A만 으로 처리되었지만, 고농도 폐수 (600톤/일)와 일반폐수(1200톤/일)를 처음 공정에서 분리하여 처리함으로써 LINE B의 일반폐수를 처리후 전량 재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LINE B시설이 조폐공사 시절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것이었지만 고급종이를 생산했던 당시 회사로서는 재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치해 두었던 것을 그동안 동사도 답습해 왔었다고. 그러나 연구와 협조에 능한 동사의

트리오가 이를 그대로 돌리가 없었다. 환경관리과 김수형관리인, 품질관리부 송용철차장, 생산부 김영 언차장 — 이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원가절감의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다. <참고 1>

대기오염물질은 분진 200mg/Sm³, SO₂ 600ppm, 매연 1도 이하로 처리되고 있으며 측정은 자가 측정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수질은 자체에 설비된 최신의 장비로 주 3회이상 정확한 측정을 하고 있다.

동공장의 환경관리 전담요원은 송용철차장 휘하에 안승환대리, 김수형관리인을 중심으로 수질기사1, 2급 각각 1명씩과 실험분석요원 2명, 교대근무자 6명을 포함 총 13명이 24시간 완벽한 폐수처리를 한



▲고운 쪽빛 하늘을 비추는 침전조. 폐수처리장 전체에 새로 도색을 하여 단장하였다. 왼쪽으로부터 김수형관리인, 안승환대리, 홍성택기사, 송용철차장

다.

동공장이 문을 열때 입사한 김수
형관리인은 이외의 경험까지 13년
간 환경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
랑 환경관리인이다. 그는 수질, 대
기 각각 2급을 소지하고 있으며 충
청협회의 실무를 도맡는 총무로
서 일을 훌륭히 해낸다고도 정평이
나있다.

'83년 겨울, 펌프에 이상이 있어
혹독한 추위에 물속에서 작업하던
때를 정말 잊을 수 없다는 그
는 가성소다가 겨울에 얼어서 작업
자들이 고생하는데 주목하여 충청
협회의 감사에게 자문을 얻어 겨울
에도 얼지않는 NaAlO_2 사용에 기여
하기도 한 세밀한 안목의 소유자이
다.

성부실업주식회사의 환경관리운
영의 묘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모든 요원들의 노력과, 이를 신뢰
하고 뒷받침해주는 경영진의 환경
보전의식과 아량으로 이루어진 줄
안다. 앞으로도 계속 충청지역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

구분	원수 (평균)	처리수 (평균)
PH	6.8	7.2
BOD	250ppm	50ppm
COD	200ppm	40ppm
SS	200ppm	20ppm

성부실업주식회사

대전시 중구 태평동 423-20호
TEL. 522-0005~6

〈참고 1〉 폐수처리 공정도

